


입 사 지 원 서

	성 명	이지현	지원 분야	웹디자인, ui, ux
	생년월일	1997.10.22	E-mail	xihyeon.lee@gmail.com
	주 소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명천로 243, 명곡리 505. 302 (주소 이전 가능)		
	연락처	010-3225-2400		

학력사항

학교명	재학 기간	전공	소재지	학점 및 기타
순천대학교	2016.03 ~ 2020.02	영상디자인과	전남 순천시	3.68/4.0
경북예술고등학교	2013.03 ~ 2016.02	애니메이션과	대구 광역시	

교육사항

교육과정명	교육 기간	교육 내용	교육 기관
디지털 컨버전스	20.08.13 ~ 21.01.13	웹 퍼블리셔 양성과정	그린 컴퓨터 학원
웹디자인	2029.09 ~ 2020.07	웹디자인 기초	엠디자인 스튜디오

사회활동 및 기타 경험

프로젝트명	활동 기간	주요 활동 업무	활동 기관
[토마토 3기] 벽화 봉사활동	2016.02	마을 벽화그리기 봉사활동	청소년 교육문화공동체 반딧불이
대학생 돌봄 교실 봉사	16.01.09. ~ 16.02.10	미술 커리큘럼 기획 및 이행	태전초등학교
스토리보드 입시 과외	2018.04 ~ 2020.10.28	스토리보드 입시 포트폴리오 제작	개인 1:1

자격사항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증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 기 소 개 서

예산 그리고 타협.

태전초등학교 대학생 돌봄 교실 봉사활동 '짜리몽당'이란 팀으로 하루 4시간 미술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촬영 및 운영을 담당하면서 수업 시 사용 되었던 영수증 증빙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150만원 내에서 20명의 간식비와 수업비를 충당해야했기에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가 고민이었습니다. 남극에 관련된 미술 수업이라면, 간식시간에 나눠준 요구르트를 재활용하여 펄권을 만들 수 있게 하면 어떨까 제안했습니다. 무조건 좋은 것을 고집하기 보단 한정 된 예산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타협해야함을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좋은 것을 더 좋게 만들다.

대학교 2학년시절 애니메이션 전공이었다는 점과, 과내에서 평소 수업에서의 그림과 스토리 보드로 합격을 했던 것을 눈여겨 본 동기가 여건상 스토리보드 입시를 무료로 해주었으면 좋겠는 운동부 친구가 있으니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들려주고 싶은 스토리가 무슨 내용인지, 어떤 분위기로 하고 싶은지 원하는 방향성이 있는지 물어보고 최대한 건들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인 연출과 어떤 색을 쓰는 것이 효과적인지 집어주었습니다. 좋은 스토리보드였지만 더 개선시킬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합격이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팔로워 쉽을 배우다.

대학교시절 인터랙티브 수업에서 로고부터 제품, QA까지 카페24 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쇼핑몰 브랜드를 운영하였습니다. 한 학기동안 진행 된 수업에서 기획과 디자인을 맡았습니다. 회의록 작성 및 일정관리 업무분배를 수행하면서, 책임감을 더욱 느낄 수 있었고 리더십도 중요하지만 리더를 잘 따르는 팔로워 쉽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교통수단이 다져준 인내심

저는 대중교통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중학생 때 1시간, 고등학교 때 2시간, 대학교 때는 3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면서 3시간정도의 거리는 가볍게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내심이 더 단단해진 덕에 포토샵, 촬영, 편집, 일러스트를 끈기 있게 배울 수 있었고, 6개월간 총800시간동안의 디지털 컨버전스 과정을 눈물날정도로 어려웠지만 빠지지 않고 들으며, html코딩과 스타일시트(css) 그리고 자바 스크립트 까지 다룰 수 있게 되어 배워야 될 것이 많지만 개발자를 이해하는 디자인과 직접 웹페이지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이 오래 근무를 해야 하는 환경과 다양한 그룹이 소통이 필요한 곳에서 빠른 이해를 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동기 (ui ux 검색)

다양한 수업을 들으며 배웠던 지식을 대입해보면서 디바이스 상의 디자인에 더욱 관심이 가게 되었고, 제가 배운 수업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협업을 통해 개선시키고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포부

디자인은 교집합을 찾는 일의 연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설득하고, 원하는 느낌을 발견하며, 함께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과 교집합을 찾으면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디자인하기 보다는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설득력 있는 디자인을 시도하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위의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 2020년 09월 18 (월)

작성자 : 이 지 현